

# 수출·생산 호조에도 소비자 지갑은 닫혔다

## 전자전기·자동차·석유제품 등 회복세 뚜렷 전쟁 불안에 소비는 광주 4.7%·전남 20.3%↓

광주·전남지역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중동전쟁 불안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의 광주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7% 늘었다. 그 중 전자전기

(33.0%)와 자동차 등 기계류(14.6%)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나갔다. 이는 지난해 11월(56.5%), 12월(27.5%), 올해 1월(29.5%), 2월(5.7%)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다.

수입도 전자전기(27.1%)를 중심으로 26.1%가 증가했다.

다만, 대형소매점 판매는 4.7% 감소했다. 백화점에서 4.4%가 증가했지만 대형마트가 18.0% 급감하면서 뒷걸음질 쳤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지난 2월 백화점(11.1%)과 대형마트(16.4%) 모두 증가하면서 13.1%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물가 상승폭도 더 커졌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동 전쟁 이후 지난 3월 1년 전보다 2.0% 상승하고 4월 역시

2.3%의 상승률을 보이며 2%대로 다시 올라왔다.

특히 교통 물가가 10.0% 오르면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음식·숙박(2.9%), 기타 상품·서비스(3.5%), 오락·문화(2.9%) 등이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27.6%), 자동차·트레이러(20.1%) 등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했다.

건설투자에서 건축착공면적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의 기타(127.3%)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허가면적은 634.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1% 증가했는데, 석유제품(196.3%) 등의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급증이 상승을 이끌었다. 수입의 경우 원유(55.2%)를 중심으로 35.7%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코크스·석유정제(38.1%) 등이 늘어난 반면, 제1차급속(-5.4%) 등이 줄면서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대형소매점 판매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0.3% 급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를 기록하고 교통(10.7%), 음식·숙박(2.3%)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건설투자는 건축착공면적이 주거용(904.0%)과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의 기타(151.6%)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2.8%가 늘고 건축허가면적은 42.0% 증가했다.

염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유가 100달러이하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할 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최근 두달 간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경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중간에 시행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다.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는 6%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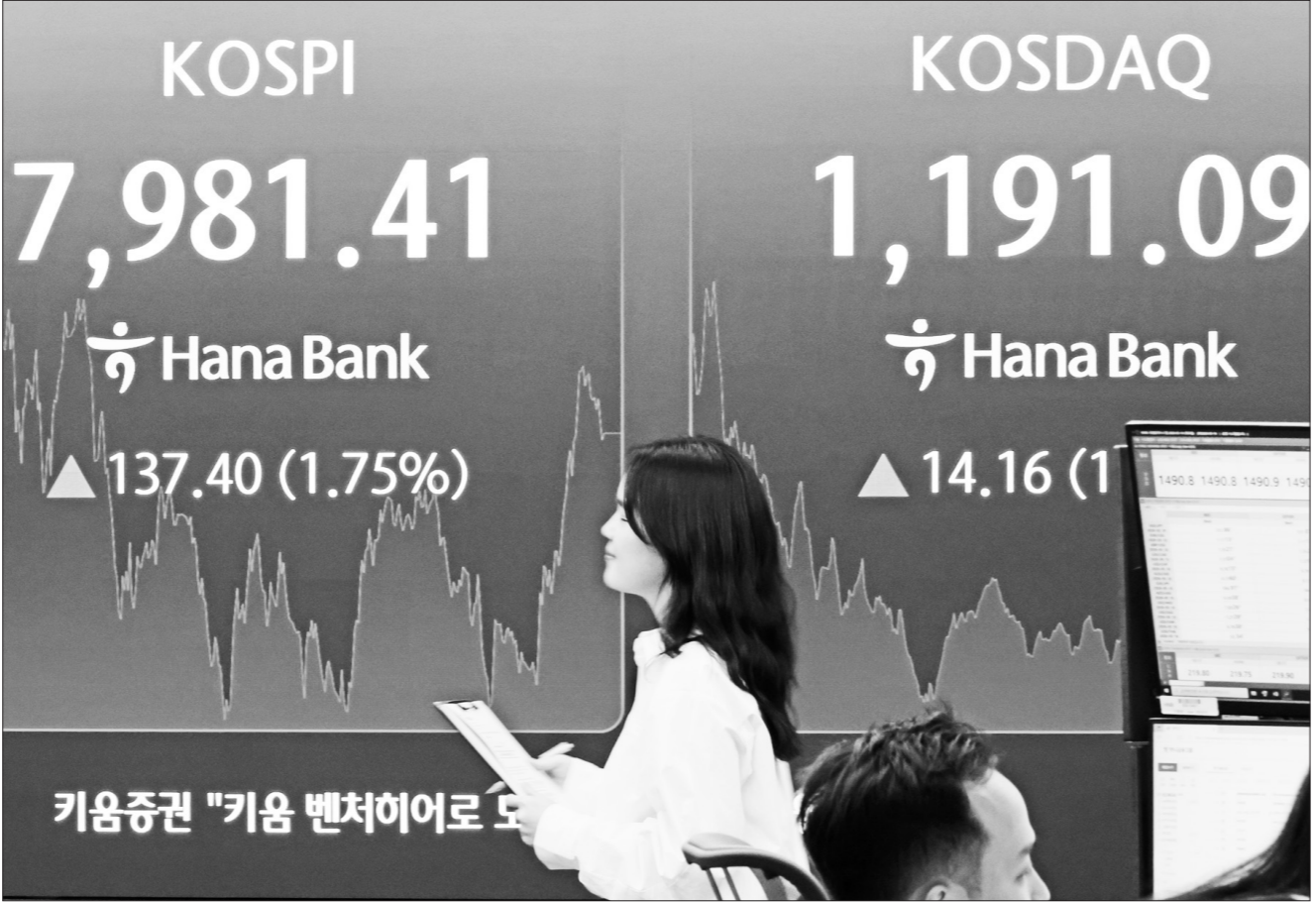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아지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안정화될 때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지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37.40p(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쳤다. '8000피'까지 19p 남은 셈이다.

## ‘8000피’까지 19p 남았다…사상최고치 ‘7981.41’

### 외국인·개인 6거래일째 코스피 수급공방

코스피가 14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7980 선에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37.40p(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90p(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1.04까지 뛰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거래일째 지속된 개인과 외국인 간 수급 힘겨루기가 장마감까지 이어졌다. 개인은 1조837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도 189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은 2조1674억원 순매도였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총 26조2375억원을 팔아 치웠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558억원과 1952억원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2920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상승세에 탄력받아 상승 출발했지만, 옵션 만기일 물량 출회로 지수의 상방이 제한됐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649개, 하락한 종목은 221개로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진 모습이었다. 보합을 기록한 종목은 30개였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2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 중 한때 5.46% 오른 29만9500원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날 7.68% 급등한 SK하이닉스는 0.30% 내린 197만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199만40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

지만 이후 등락을 오가며 결국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28%), LG에너지솔루션(2.79%), 삼성물산(3.15%), 한화에너지(1.56%), 삼성바이오로직스(2.77%) 등이 올랐다.

SK캐어(-1.60%), 삼성전기(-0.49%), 두산에너빌리티(-2.42%), HD현대중공업(-8.46%), 기아(-0.78%)는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14.16p(1.20%) 오른 1191.09로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10.09p(0.86%) 오른 1187.02로 출발해 장중 하락 전환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913억원과 589억원 매수 우위였다. 외국인은 여기서도 1484억원 순매도했다.

염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료 원료수입 긴급지원 남해화학, 중동전 공급망 차질에 대체수입선 확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비료 원료 ‘요소(urea)’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비료 원료 긴급 수급 지원에 나섰다

항만공사는 광양항 나포부두에서 접안 능력(DWT) 일부 초과 선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항만공사가 긴급 수급 지원에 나선 것은 국내 1위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이 중동 전쟁 여파로 카타르 등 주요 요소 수출국의 공급망이 막히면서 오만과 동남아 등 대체 수입선을 통해 긴급한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요소비료 수요가 많은 농번기를 앞두고 비료 생산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항만공사의 긴급 지원대책으로 지난 13일 나포부두에서는 SIDRA호(1만 8000t규모)가 안전하게 접안, 비료 요소를 하역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에 오만산 요소 수입으로 시급한 요소 재고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농업과 적극 협력해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차질없이 농업용 비료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완호 사장은 “중동사태로 많은 여수산단 화주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항만운영의 안전성을 전제로 탄력적인 부두운영을 통해 국가 공급망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여수세무서는 14일 5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며 성실납세를 이어온 ‘장수성실기업’ 대표 10명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 여수세무서, ‘장수 성실기업’에 감사장

여수세무서는 14일 5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며 성실납세를 이어온 ‘장수성실기업’ 대표 10명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행사는 묵묵히 기업을 정진해 발휘하며 고충 및 소득 창출과 국가 재정에 기여한 향토기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기업은 여수주조공사, 알파약국, 아세아볼트상사, 유엔마크-체육사, 법무사 김승곤사무소, 성호약국, 오한의원, 여수객차자동차주식회사, (자) 남진상사, ㈜동양교통이다.

김훈 여수세무서장은 “신뢰리는 최고의 자산을 일궈낸 대표님들은 후배 기업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모범적 이정표”라며 “장수 성실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헌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신협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983명의 아동에게 약 20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아동 돌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후원 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시설 보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이다. 지원금은 보육비와 학습비, 생활비 등에 사용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LH, 빛그린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공급

### 16만2000㎡ 21필지…29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 국가산단단지 1단계 산업시설용지 21필지를 추경경쟁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빛그린 국가산단단지는 유치업종인 자동차산업, 디지털정보산업, 광산업, 첨단부품소재 업종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조성 중인 407만㎡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다. 광주·함평을 비롯한 나주 등 주요 지역으로의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비롯한 다수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주변에 미래차 국가산단단지가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그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필지당 면적은 3000㎡~1만4800㎡ 총 16만2000㎡, 공급금액은 7억4000만 원~36억7000만원이다. 공급단가가 3.3㎡ 당 82만원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대금납부조건은 20억 미만 토지에 대해 2년 균등 분할납부(무이자), 20억

이상 토지는 3년 균등 분할납부(무이자)로, 계약체결일에 공급금액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6개월 단위로 4회(2년), 6회(3년) 균등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입주 및 분양 절차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LH가 함께 진행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 관련 절차를, LH는 공급 및 분양계약 관련 절차를 각각 담당한다.

분양 및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분양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주신청 및

심사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합평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LH가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음달 12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오는 6월 22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합평사무소와 입주계약을 하고, 6월 26일까지 LH와 분양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면 된다.

기타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062-360-3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주심사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합평사무소(070-8895-7935)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염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신협재단, ‘1신협-1아동’ 결연사업 추진

### 전국 403개 신협 참여…취약계층 534명에 6억5200만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전국 신협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1신협-1아동’ 결연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1신협-1아동’ 결연사업은 참여 신협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 1대 1로 연결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일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장기 아동후원 사업이다. 단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성장기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403개 신협이 참여해 총 534명의 아동을 후원한다. 후원 규모는 총 6억5200만원에 달한다.

신협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983명의 아동에게 약 20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아동 돌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후원 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시설 보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이다. 지원금은 보육비와 학습비, 생활비 등에 사용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